

# 베트남공화국 패망의 軍事史的 高찰\*

최 용 호\*\*

1. 서 론
2. 베트남의 역사와 국가명칭 유래
3. 전쟁의 경과 및 베트남공화국 패망의 원인
4. 한반도에 시사하는 교훈
5. 결 론

## 1. 서 론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 전차가 '베트남공화국(the Republic of Vietnam)'의 수도였던 사이공(현 호치민시)의 거리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11시 30분, 그 중 한 대의 전차가 대통령궁(현 독립궁)의 정문을 부수며 진입했다. 이어 게양되어 있던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의 국기를 끌어내리고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sup>1)</sup>의 깃발을 올렸다. 1955년 10월 미국의

\* 본 논문은 한국보훈학회 2011년 추계 세미나(9. 2. 백범기념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완한 것이다.

\*\* 사단법인 전쟁과평화연구소 연구부장

1)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 Nation Liberation Front) : 베트남의 지휘부로 1960년 12월 20일 창설되었다. 전쟁기간 중 그들은 '남베트남임시혁명정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적극적인 후원을 얻어 건국된 베트남공화국이 20년 만에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마지막 모습이었다.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베트남공화국의 패망을 사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남·북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을 설명하거나 또는 이념에 의한 전쟁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베트남의 역사와 베트남공화국의 패망사례는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다. 지금도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portal site)인 다음(daum)이나 네이버(naver) 등에 접속해 “베트남 패망” 또는 “월남 패망” 등의 주제어(key word)로 검색하면 수백 건의 자료들이 검색된다.<sup>2)</sup>

가히 자료의 홍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하다. 많은 자료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국가명칭도 그 중 하나다. 예를 들어 1960년대 한국군 파병 시 사용했던 ‘월남-월맹’의 구도를 수정 없이 사용하면서 시차적인 모순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마치 눈 가리고 코끼리 만지기 식의 부분적인 경험이나 지식으로 전체를 평가하거나 또는 자신의 주관에 의해 특정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비

---

베트콩(越共, Viet Cong, 일명 VC)은 남베트남의 공산주의자(Vietnamese Communist)를 지칭하는 용어로 NLF의 무장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유격대”라고 호칭한다.

- 2) 본 논문의 주제와 유사한 내용의 최근 연구는 서경석, “월남 패전의 원인과 교훈”, 『軍史』 제43호, 2011, pp.297~322. ; 이대용, “월남은 이렇게 망했다! : 월남패망(75. 4. 30) 29주년에 즈음하여 패망직전의 월남을 닮은 한국을 생각한다.”, 『한국논단』 제174호, 2004, pp.12~23. ; 김용삼, “월남의 적화과정과 한국 사회의 요즈음 사정”, 『월간조선』 제244호(2000. 7), 2000, pp.139~147 등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유학 중인 베트남 연구자의 논문으로 Thanh Thao Mien, “1975년 남베트남 패망이 한국 사회와 한-미-일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10. 등의 자료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소개한 대부분의 논문은 본 논문과 접근방식 및 분석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그 중 맨 처음에 소개한 서경석의 논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문담형식으로 베트남전쟁의 성격 등을 규정하고, ② 전쟁의 원칙을 적용한 분석과 함께 진술, 미행정부의 간섭, 헬기문제 등을 추가로 분석했으며 ③ 월남 패전을 통해서 본 교훈”을 제시했다. 따라서 본 논문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 외에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을 경고하는 내용 위주로 기술된 경고성 기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http://www.daum.net/>, <http://www.naver.com/>, 검색어: “월남 패망”, “베트남 패망”, “월남통일”, “베트남 통일”, 검색일: 2012. 1. 30.

일비제하다.

주변에 넘쳐나는 주제들에 대해 전·후 역사적 사실과 배경 등을 명확히 이해 한 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면 그 해석은 올바른 교훈에 도달할 수 있다. 반면 전후의 사실을 간과한 채 자신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인 해석을 이끌어 낸다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나아가 과급력이 큰 연구자나 매체의 자료일수록 인용과 재인용이 이어지면서 그 오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진실과 전혀 다른 여론 조성’에 이용되는 사례도 있다. 히틀러(Adolf Hitler)와 같은 독재자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도조히데키(東條英機)도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왔다. 잘못된 역사해석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례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도 잘못된 사실, 또는 잘못 해석된 정보가 오히려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서로를 의심케 하며 계층 간의 골을 더 깊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그동안 수도 없이 언급되었던 주제(主題)임에도 불구하고 편향적이고 왜곡되었던 베트남전쟁과 베트남공화국 패망의 원인 및 교훈에 대해 보다 권위 있는 매체를 이용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분석을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2장에서 베트남의 역사적 배경 중에서 한반도와 유사성을 살펴본 후 베트남의 국가명칭과 관련된 내용의 분석을 통해 베트남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 제3장에서 제2~3차 베트남전쟁의 경과를 요약한 후 베트남공화국의 패망원인과 교훈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어 제4장에서 베트남의 무력통일이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한반도에 시사하는 교훈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sup>3)</sup>

3) 베트남은 한반도만큼이나 긴 역사를 통해 수많은 외적의 침입에 시달려왔다. 특히 3,260km에 이르는 해안선과 연간 4모작이 가능한 지형 및 기후 등으로 어업과 농업에 유리했기 때문에 몰자가 풍부한 지역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1천여 년 동안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프랑스로부터도 1백 년 가까운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그 기간 중에 수많은 전쟁

## 2. 베트남의 역사와 국가명칭 유래

### 1)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적 유사성

동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의 반도에 위치한 한국과 남쪽 끝의 반도에 위치한 베트남은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양국의 역사는 아래의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대의 역사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유사성이 많다.

<표 1> 베트남과 한국의 역사적 유사성

① 망명정부 수립	- BC203년, 진(秦)이 멸망하자 췌에우다(趙佗), 남비엣 수립, 베트남 점령(BC179) - BC195년, 연(燕)에서 망명한 위만(衛滿) 고조선 왕위 찬탈(BC194), 위만조선 수립
② 한(漢)의 침입	- BC111년, 베트남(남비엣, 南越) 점령 2개 군(漢二郡) 설치 - BC108년, 고조선(위만조선) 점령 4개 군(漢四郡) 설치
③ 당(唐)의 침입	- 668년, 고구려 점령 안동도호부 설치 - 672년, 베트남 지배 안남도호부 설치
④ 몽골(元)의 침입	- 1231~1259년, 고려 침략, 지배(1259~1356, 98년간) - 1257~1287년, 베트남 침략, 지배하지 못함
⑤ 서양세력 침입	- 1858년, 프랑스 베트남 침략, 다낭 점령 - 1866년, 프랑스 강화도 침략, 병인양요(丙寅洋擾)
⑥ 청(淸) 종주권 포기	- 1885년, 청불전쟁으로 프랑스와 텐진(天津)조약 체결, 베트남의 종주권 포기 - 1895년, 청일전쟁으로 일본과 시모노세키(下關)조약 체결, 조선의 종주권 포기
⑦ 민족 간 이념전쟁	- 1949년 3월, 프랑스, 식민지전쟁을 이념전쟁으로 유도 · 중국·소련, 1950년 1월 호찌민 정부 승인 · 미국, 1950년 2월 호찌민 정부를 공산정권으로 규정, 바오다이 정부 승인 - 1950년 6월, 김일성 남침전쟁 시작 · 소련, 미국의 조치에 반발, 1950년 4월 초 김일성의 전쟁 승인

자료 : 안주섭 외, 『영토한국사』, 소나무, 2006, pp.28~162. ;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9~31.

을 겪으면서 무수한 전쟁의 명칭이 만들어졌지만, 일반적으로는 근·현대의 전쟁으로 국한해 프랑스와 싸운 제1차 베트남전쟁, 미국 등 연합군과 싸운 제2차 베트남전쟁, 미군이 철수한 후 남베트남을 점령하기 위한 제3차 베트남전쟁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베트남 사람들은 항불전쟁, 항미전쟁, 해방전쟁으로 각각 호칭한다.

앞의 <표 1>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의 패망 이후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념전쟁으로 제1차 베트남전쟁이 그 시작이었다. 호찌민 세력과 전쟁을 시작한 프랑스는 민족의 독립을 전면에 내세운 호찌민 세력에게 전쟁의 명분에서 밀리고 있었다. 프랑스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베트남 왕조의 마지막 황제 바오다이(Bao Dai)를 끌어들이 식민지전쟁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대결로 몰아갔다. 그 시기에 중국대륙에서는 장제스(蔣介石)가 축출되면서 마오쩌둥(毛澤東)의 공산정부가 수립됐다.<sup>4)</sup>

프랑스가 유도한 이념대결 구도는 오히려 호찌민 세력에게 기회가 되었다. 그들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그 결과 중국은 1950년 1월 18일, 소련은 같은 달 30일 각각 호찌민 정부를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소련의 조치에 대해 분개했다. 프랑스의 식민정책에 대해 반대 내지는 소극적인 묵인으로 일관하고 있던 미국이 1950년 2월 7일, 호찌민 정부를 공산정권으로 규정하고 프랑스의 꼭두각시 정권인 바오다이 정부를 승인한 것이다.<sup>5)</sup>

소련과 미국의 감정싸움은 점점 격화되어 갔다. 그 시기에 김일성은 스탈린이 1949년 3월 거부한 바 있는 남침전쟁의 승인을 다시 요청했다. 스탈린도 그때까지는 김일성의 남침전쟁 도발을 만류해왔지만, 호찌민 정부를 합법정부로 승인하면서 마음을 바꿨다. 그는 베트남의 호찌민 정부를 승인 하던 날인 1950년 1월 30일,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요청을 승인했다. 이어 1950년 3월 말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불러들인 스탈린은 김일성의 전쟁 계획을 승인해주면서부터 한반도의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다.<sup>6)</sup> 결국

4) Duiker, William J., *Ho Chi Minh*, New York : Hyperion, 2000, pp.399~433.

5) 미국은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1950년 6월,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발발하자 공산주의 팽창의 '도미노(domino)현상'을 우려해 프랑스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에 앞서 1950년 1월 18일,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국 정부가 호찌민 정부를 승인했으며, 같은 달 30일에는 경쟁적으로 소련의 승인이 이어졌다. 그때부터 제1차 베트남전쟁은 중국과 소련이 지원하는 호찌민군과 미국 등 자유진영이 지원하는 프랑스군이 대결하는 양 진영 간의 이념(ideology)전쟁으로 바뀌게 됐다.

6) 김일성은 1949년 초부터 스탈린에게 남침전쟁 승인을 집요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김일성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대신 이승만이 북한을 공격해올 경우 반격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던 스탈린이 전쟁 승인요청을

제1차 베트남전쟁은 중국의 타이완 문제<sup>7)</sup>, 김일성의 남침 등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sup>8)</sup>

이상과 같은 동아시아 전쟁의 역사를 고려할 때 주변 강대국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전쟁은 어느 특정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과 주변 4강국의 정세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공동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 베트남의 국가명칭 유래

‘베트남’과 ‘베트남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 월남(越南), 또는 안남(安南), 월맹(越盟) 등으로 불렀던 그들의 국가명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베트남(Viet Nam : 越南)’의 명칭 유래다. 과거 중국은 자신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동북지역 및 동남지역 등 주변지역에서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날 때마다 그들에게 국가명칭과 왕위를 승인해 주는 절차를 통해 속방(屬邦)으로 삼았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朝鮮)’을 건국했을 때 국가명칭과 이성계의 즉위를 승인해준 것도 같은 방식이었다.

그런 관례에 따라 베트남의 남부에서 시작해 1802년 북부지역까지 점령한 후 통일왕조를 수립한 응웬푹아인(Nguyen Phuc Anh)은 1803년, 청(淸)에 사신을 보내 새로운 왕국의 국호를 남비엣(Nam Viet : 南越)으로

---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겠다는 김일성의 제안을 승인한 것은 1950년 1월 30일이었다. 호찌민의 베트남을 승인할 날짜와 같은 것이다. 즉 소련의 입장에서 베트남전쟁과 6·25전쟁이 같은 전략에서 검토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1: 전쟁의 배경과 원인』, 2004. pp.547~553.

7) 1950년 초까지 마오쩌둥(毛澤東)은 자신의 최대 과제로 타이완 점령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김일성과 스탈린의 전쟁결정으로 인해 타이완 점령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8) 6·25전쟁과 베트남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프랑스의 베트남 지배를 적극 반대했다. 따라서 프랑스의 베트남정책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미국이 프랑스를 적극지원하게 된 것은 김일성의 남침이 그 계기였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우려했던 미국이 6·25전쟁을 휴전으로 겨우 봉합했을 때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려면 베트남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해줄 것과 자신을 국왕에 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은 남비엣이 과거 남중국을 지배했던 쩌에우다(趙佗)의 남비엣(BC207~111)<sup>9)</sup>을 상기시킨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후 남비엣(南越)의 두 글자를 서로 바꾸어 '베트남(Viet Nam : 越南)'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이라는 국명이 만들어 졌다.<sup>10)</sup>

둘째, 안남(安南)은 위의 <표1>과 같이 지배하고 있던 베트남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당(唐)이 설치한 안남도호부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그로 인해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쌀이 '안남미(安南米)'로 불리기도 했다. 베트남에서는 안남도호부의 '도호(都護)'를 식민지배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셋째, '베트민(Viet Minh : 越盟)'의 명칭 유래다. 호찌민(Ho Chi Minh, 胡志明 : 1890~1969)은 1941년 5월, 베트남 북부 국경지대에서 공산당 제8차 중앙위원회를 주재했다. 그때의 회의에서 일본의 베트남지배에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베트남 독립을 위한 단체로 '베트남독립동맹(Viet Nam Doc Lap Dong Minh : 越南獨立同盟)'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부터 '베트남독립동맹'은 약칭으로 '베트민(Viet Minh : 越盟)'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베트민(越盟)은 프랑스와 일본 세력을 타도하기 위해 공산주의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혁명세력들을 규합하는 '베트남 민족주의'를 표방했다. 당시의 여건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호소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간파한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세력을 용이하게 동원하기 위해 민족주의 세력을 이용한 것이다. 그 후 1945년 9월 2일, '베트민' 주도로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베트민은 그 목적을 달성한 후 사실상 소멸됐다.<sup>11)</sup>

9) 남비엣(南越, BC203~BC111)은 진(秦)나라에서 난하이(南海)군수를 지냈던 쩌에우다가 광둥(廣東), 광시(廣西)와 베트남 북부를 망라한 지역에 세운 국가였다. 따라서 웅웁콰인인의 요구대로 그들의 국호를 남비엣으로 승인해 줄 경우 차후 영토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10) 오구라 사다오 지음, 박경희 역, 『베트남사』, 일빛, 1999, pp.158~159.

11) Duiker, William J., *Ho Chi Minh*, New York : Hyperion, 2000, pp.229~257

넷째, '베트남민주공화국(越南民主共和國)'의 명칭 유래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베트남(越盟)은 각계의 대표 60명으로 인민의회(人民議會)를 구성하고 하노이의 모든 공공시설을 접수했다. 응웬왕조의 마지막 황제 바오다이(Bao Dai)는 8월 25일 "호찌민을 지지한다."라고 선언한 후 퇴위했다. 베트남 사람들은 이를 '8월 혁명'이라고 부른다.

하노이에 개선(凱旋)한 호찌민은 8월 29일, 내각을 구성하고 9월 2일, 50만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인용한 베트남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베트남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Viet Nam)' 수립을 선포했다. 이어 베트남은 남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기존의 종교단체와 독립단체 등의 연합전선에 대해 실행행사를 통해 물러나게 하면서 베트남의 모든 행정조직을 장악했다.

그 후 프랑스와 독립전쟁(제1차 베트남전쟁)을 시작한 호찌민 세력은 1954년 5월 7일, 디엔비엔푸(Dien Bien Phu)에서 프랑스 세력을 격파하고 승리했다. 패배한 프랑스는 1954년 7월 20일, 제네바에서 호찌민측과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북은 호찌민이 통제하고 남은 프랑스가 옹립한 바오다이 황제 체제를 유지하되 2년 후에 선거를 실시 통일 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프랑스의 항복과 같은 조건이었다. 제네바협정에 따라 호찌민이 수립한 '베트남민주공화국'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1954년 7월 20일 이후부터는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다섯째, '베트남공화국(越南共和國)'의 명칭 유래다. 남베트남에 강력한 반공정부가 수립되려면 보다 참신한 인물과 새로운 정부가 필요했다. 호찌민 세력에게 밀려 17도선 이남으로 물러난 프랑스가 세운 바오다이 체제는 한계가 있었다. 그와 같은 미국의 의도에 부합되는 인물이 바로 응오딘지엠(Ngo Dinh Diem : 1901~1963)이었다. 프랑스의 탄압에 반발해 미국으로 망명했던 '지엠'은 1954년 6월, 제네바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직전 귀국해 바오다이 정부의 수상이 됐다. 그때부터 지엠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

12) Duiker, William J., *Ho Chi Minh*, New York : Hyperion, 2000, pp.399~433.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5년 10월 26일, '베트남공화국(the Republic of Vietnam)'을 수립하고 자신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 결과 베트남에는 '베트남공화국(the Republic of Vietnam)'과 베트남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Viet Nam), 약칭으로 '남베트남(South Vietnam)'과 '북베트남(North Vietnam)'으로 불리는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면서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하는 새로운 남·북 분단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념적으로도 남쪽은 미국의 후원을 받아 자본주의체제를 채택했으며, 북쪽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게 되면서 제2차 베트남전쟁(항미전쟁)의 배경이 되었다.

여섯째, 현재 베트남의 국명인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越南社會主義共和國)'의 명칭 유래다.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 군대가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을 점령함에 따라 제3차 베트남전쟁(해방전쟁)이 끝났다. 1955년 10월 26일, 지엠에 의해 건국된 '베트남공화국(the Republic of Vietnam)'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무력에 의해 남베트남을 점령한 북베트남은 국가 통합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북베트남은 남베트남해방전선(NLF)을 주체로 하는 임시혁명정부와 같은 기구들을 점차 무력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이어 1976년 7월 2일, 북베트남이 주도하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Vietnam)'을 선포하면서 남베트남의 임시혁명정부를 흡수 통합했다.

일곱째, 호찌민의 주도로 1945년 건국된 '베트남민주공화국'과 1976년 이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차이점이다. 1945년 9월 2일 베트남민족주의 정부를 수립한 호찌민은 미국과 유대를 간절히 원했다. 따라서 그가 수립한 정부 역시 가급적 공산주의 색채를 지우고 민주정부로 비취지기를 희망했다. 따라서 국가명칭에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Democracy)'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1976년 7월, 미국의 군대를 축출한 북베트남은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당당하게 국가 명칭에 Socialist를 포함시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sup>13)</sup>

13) Duiker, William J., *Ho Chi Minh*, New York : Hyperion, 2000, pp.282~303.

추가적으로 Viet Nam(越南)의 음가는 ‘베트남(위에트남)’이다. Vietnam의 음가를 한자로 표기할 경우 越南이 되는 것이며 중국식 발음은 ‘위에(트)남’이다. 그 한자를 한국이 도입해 한국식 음가로 발음한 것이 ‘월남’이다. 따라서 월남이라는 음가는 오로지 한국에서만 사용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외국의 국명, 지명 인명 등은 가급적 현지의 음가에 가깝도록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도 베트남전쟁(Vietnam War), 남베트남(South Vietnam), 북베트남(North Vietnam) 등으로 표기했다.<sup>14)</sup>

반면 1960년대 한국이 구분한 ‘월남(越南)’ - ‘월맹(越盟)’의 대비는 당시 우리가 지원하던 남베트남에게 역사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것은 정치적인 해석이었으며, 베트남(越南)은 베트남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남부만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었다. 또한, 베트남전쟁 당시 월맹(越盟)은 존재하지 않았던 단체였다.<sup>15)</sup>

월맹은 앞서 설명과 같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베트남이 독립을 위해 만들었던 독립단체 중 하나였으며 그 단체가 중심이 되어 1945년 9월 2일, 베트남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Viet Nam)을 수립했다. 그리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베트남민주공화국은 1954년 7월 20일, 프랑스 등과 제네바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1960년대에 남베트남을 월남(越南)으로, 북베트남을 월맹(越盟)으로 구분 짓는 방식은 오로지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분류법이었다. 그 같은 분류는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학술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 사용했던 문서 등 관련기록을 표기할 때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월남(越南)으로 표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반면 현재의 용어로 표기할 때는 ‘베트남’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14) U.S. Army, "Records of the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Part I, 1953 ~197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micro film, 등록번호 MF 000935~000982.

15) 국방부 정책국 M/F film자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 사료철", 외교통상부, "베트남전쟁관련 문서", U.S. Army, "Records of the Military Assistance Command Vietnam" 등 관련 사료 참조.

### 3. 전쟁의 경과 및 베트남공화국 패망의 원인

#### 1) 제2차 베트남전쟁과 미군의 개입 및 철수

제1차 베트남전쟁(항불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는 철군을 서둘렀다. 그들은 평화협정 체결 시 2년 후인 1956년 7월 20일까지 베트남 독립을 위한 남·북 총선거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년을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포기하자 공산주의 팽창을 우려했던 미국이 대신 나섰다. “남베트남에 강력한 반공정부를 수립해 공산주의 도미노(domino)현상을 차단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미국은 프랑스 점령시절 미국으로 망명했던 응오딘지엠(Ngo Dinh Diem)을 앞세웠다. 실권을 장악한 지엠은 1955년 10월 26일, ‘베트남공화국(the Republic of Vietnam)’을 수립하고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욕이 앞섰던 지엠 정부는 토지개혁, 정착촌 건설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관리들의 부패도 척결하지 못했다.<sup>16)</sup>

그 사이에 지엠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결집해 임시정부 수준의 민족해방전선(NLF)을 결성했다. 그러자 지엠 정부는 족벌(族閥) 독재정치를 더욱 강화했다. 주민들의 반발과 지엠 정부의 강압정치가 계속되면서 해방전선의 군사조직인 베트콩(VC)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북베트남 정부도 산악지대에 비밀통로(일명 호찌민통로)<sup>17)</sup>를 구축해 남베트남의 저항세력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해상 보급로도 적극 활용했다. 그때부터 남베트남은 전 지역이 전쟁터로 바뀌고 말았다.

반정부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엠 일족(一族)은 1963년 11월 1일,

16) Duiker, William J., *Ho Chi Minh*. New York : Hyperion. 2000, pp.467~473.

17) 호찌민(Ho Chi Minh)통로 : 북위 17도선 북쪽의 광빈(Quang Binh)성에서 시작해 베트남 중부의 험준한 쩌엥선(Truong Son : 長山)산맥의 라오스와 캄보디아 국경선을 따라 라오스와 캄보디아 지역 내에 설치된 북베트남군의 보급로를 말한다.

쿠데타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지엠이 실각된 후부터 10여 차례나 반복된 쿠데타와 정권교체로 민심이반 현상이 가속화됐다. 그 같은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반대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64년 8월, 소위 ‘통킹만사건’<sup>18)</sup>을 계기로 의회로부터 전쟁권한을 위임 받은 존슨 정부는 1965년 7월 ‘베트남전쟁의 미국화’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존슨은 군부(軍部)의 주장 즉 “군사분계선(북위17도선)을 돌파해 하노이로 진격하자!”는 요구를 거부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중국의 개입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때 한국을 비롯한 8개국의 군대가 남베트남에 파병되고, 소련과 중국은 물론 북한까지 북베트남을 지원함으로써 전쟁은 한반도의 6·25전쟁과 유사한 국제전으로 비화되었다.<sup>19)</sup>

1968년 1월 NLF와 북베트남군의 ‘땃(Tet, 설명절)공세’<sup>20)</sup>는 전쟁의 전환점이었다. 땃공세를 계기로 “베트남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미국의 환상은 깨어졌다. 군사적 측면에서 볼 때 땃공세 이후 NLF와 북베트남은 인적자원과 보급능력 고갈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18) 통킹만사건 : 1964년 8월 2일 베트남 북부 통킹만의 공해(公海)를 순찰 중이던 미국의 구축함 매독스호가 북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았다. 이에 미국의 공군이 베트남 북부 항구도시 하이퐁 등을 폭격하면서 베트남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한편 미국은 8월 4일 터너 조이호도 같은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8월 4일의 베트남 어뢰정 공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19) Stoessinger John G., 『전쟁의 원인』 군사참고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8, pp.132~148.

20) 땃(Tet)공세 : 1968년 1월 31일, 북베트남군과 베트남에 의해 남베트남 전역에서 감행된 전면공세를 말한다. 과거에는 음력 설날 공세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구정(舊正)공세’로 불렸다. 땃(Tet)란 베트남어로 설을 뜻한다. 베트남에서 땃은 민족 최대의 명절로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을 합한 만큼이나 중요한 명절로 여긴다. 따라서 베트남 사람들은 음력 1월 1일을 전후해 통상 1주일 이상의 휴가를 갖고 각종 민중행사를 즐긴다. 그 같은 정서에 따라 땃에는 전쟁조차도 1주일 정도 휴전하고 명절을 즐겼다. 이를 위해 미군과 NLF는 통상 크리스마스와 음력설을 기해 임시휴전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1968년 땃(설)이 임박하면서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던 북베트남과 NLF의 기만전술에 따라 휴전협정이 곧 체결될 것처럼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지연전술에 의해 체결되지 못했다. 그러나 많은 남베트남군은 이미 휴가를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휴전협상 결렬에 따른 쿠데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미 늦어 버렸다. NLF의 책략에 연합군이 말려든 셈이었다.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전쟁의 실상이 TV를 통해 안방까지 생생하게 전달되면서 국민들은 베트남전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sup>21)</sup>

그때부터 베트남전쟁의 의미와 성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반전(反戰)여론이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베트남 전쟁을 기필코 승리로 이끌겠다.”던 존슨 정부의 의지도 국민의 거센 저항을 극복할 수 없었다. 강경론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눈앞에 다가온 승리를 내부 분란으로 놓치게 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었다.<sup>22)</sup>

존슨 정부는 1968년 3월 31일, 성명을 통해 북폭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상을 제안했다. 또한, 소련과 영국에게도 협상의 성사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노이 정부는 3일 후 “미국의 제안을 수락한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미국과 북베트남의 평화협상을 위한 예비회담이 1968년 5월 10일 파리에서 열렸으며 13일에는 제1차 본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협상은 진척되지 못했다. 미국은 북폭 중지를 조건으로 북베트남의 양보를 요구했지만 북베트남은 폭격의 완전한 중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상전투는 더욱 가열되기만 했다.

1968년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닉슨(Richard M. Nixon)의 베트남정책은 미군이 패배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미군을 서서히 철수시키고 그 공백을 사이공 정부군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닉슨은 1969년 6월 8일, 태평양의 미드웨이(Midway)섬에서 남베트남의 티에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8월 말까지 미군 2만 5천여 명을 철수시킬 것이며 연말까지 더욱 많은 병력을 감축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의 정책이 ‘베트남전쟁의 미국화’로부터 ‘베트남전쟁의 베트남화’ 정책으로 선회했음을 선언한 것이다. 또한, 닉슨은 그해 7월 25일 괌(Guam)에서 “앞으로 미국은 국지전 개입을 제한할 것이며, 아시아 국가들의 방위는 자국(自國)이

21) Ellsberg, Daniel, *SECRETS : A Memoir Vietnam and the Pentagon Papers*, New York : Penguin Books, 2002, pp.215~225.

22) Westmoreland, William C., *A Soldier Report*, New York : Doubleday & Company, Inc., 1976, pp.407~425.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을 발표했다.

그 같은 닉슨의 정책에 따라 1968년 말 54만 8천여 명에 달했던 베트남의 미군은 1972년 말까지 2만 9천여 명으로 대폭 감축되었다. 그 대신 1967년 말 기준으로 63만여 명이었던 남베트남군은 1970년도부터 100만 명을 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적인 숫자일 뿐이었다. 규모와 장비면에서 남베트남군은 어느 선진국 군대에 뒤질 것이 없었지만 훈련이 부족했다. 특히 “내 나라를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었다.

그 사이에 협상을 계속해 오던 키신저와 레독토는 평화협정안(案)에 합의하고 1973년 1월 23일 가조인했다. 1월 27일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1월 28일 08:00(베트남 시간)부로 발효시켰다. 평화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개입으로 10년 가까이 계속되었던 제2차 베트남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sup>23)</sup>

파병된 미군과 한국군을 비롯한 연합군은 “평화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철수를 완료한다.”는 조항에 따라 1973년 3월 26일까지 철수했다. 그때부터 남베트남은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지켜야만 했다. 파리 평화협정이 남베트남의 평화를 보장해 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sup>24)</sup>

## 2) 제3차 베트남전쟁과 베트남공화국 패망

1973년 1월 28일, ‘베트남평화협정’이 발효되고, 미군 등 연합국 군대가 철수함에 따라 베트남공화국(남베트남)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했다. 그러나 외세척결을 외쳐오던 대부분의 남베트남 국민들은 모든 외국군이 철수했음에도 북베트남과 NLF의 도발에 대해 방관적 자세로 일관했다.<sup>25)</sup>

23) Ellsberg, Daniel, *SECRETS : A Memoir Vietnam and the Pentagon Papers*, New York : Penguin Books. 2002, pp.343~355.

24) 최용호,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71~113.

25) 채명신, “베트남전쟁의 특성과 연합작전”, 최용호 편, 『베트남전쟁 연구총서』 제1권, 국방

당시 남베트남은 <표 2>와 같이 북베트남 및 NLF와 비교해 월등히 우세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공군력의 경우 북베트남군의 항공기는 구형장비였지만 남베트남군은 F-5A 등 당시로써는 최신장비로 무장되어 세계 4위의 공군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5년 1월 북베트남군의 총공세가 시작되자, 이에 맞선 남베트남군은 전투다운 전투도 해보지 못한 채 그해 4월 30일 최후를 맞이했다.<sup>26)</sup>

<표 2> 평화협정 체결 직후 남·북의 군사력 비교

구 분		병력수	편제 및 장비
남베트남군	계	1,100,000	11개 보병사단, 공수사단, 해병사단, 해군 및 공군, 전차 600대, 장갑차 1,200대 항공기 1,270대, 헬기 500대, 함정 1,500척
	정규군	573,000	
	지방군, 민병대	527,000	
북베트남군	계	1,000,000	15개 보병사단, 전차 및 장갑차 600대 항공기 342대
	정규군	470,000	
	베트콩, 기타	530,000	

자료 : 최용호,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p.8~14.

### 3) 베트남공화국 패망의 원인

#### (1)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정부와 지도층의 부패

남베트남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은 지대했다. 그리고 비교적 참신했던 젊은 지도자 응오딘지엠(Ngo Dinh Diem)이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얻어 남베트남을 이끌게 되면서 남베트남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듯했다.

대다수의 남베트남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지엠(Diem) 정부가 미국

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99~102.

26) 최용호, 『사진으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도서출판 보라, 2010, pp.224~225.

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보다 넓은 포용력을 발휘해 반대세력들을 끌어들이 수 있었다면 남베트남의 장래는 보장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지엠 정부는 '전략촌(Strategic Hamlet)'<sup>27)</sup> 건설 등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정책들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면서 점점 족벌(族閥)에 의한 독재정치로 기울게 되었다. 또한, 관리들의 무사안일과 부패가 만연되면서 정부의 발목을 잡았으며 정부와 민심을 이간시키는 촉매로 작용했다.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그들을 억압하기 위한 강압적인 조치들이 연이어 시행됐다. 그러나 더욱 높아진 국민들의 불만과 독재정치의 악순환은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정부가 민심을 잃게 되자 지엠 집권 초기 그를 도왔던 세력들이 반대세력으로 돌변했다. 반대세력의 증가는 베트남의 지원세력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결국, 지엠 정부는 1963년 11월, 쿠데타로 무너지고 말았다.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던 지엠 정권이 무너지자 혼란은 극에 달했다. 그 결과 1967년 9월, 응웬반티우(Nguyen Van Thieu)가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4년 동안 무려 열 번에 이르는 쿠데타와 정권교체가 반복되면서 나라 전체가 심각한 혼란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수시로 바뀌는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가질 수 없었으며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었다. 집권층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정권유지에 급급했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부패는 더욱 가속화됐다. 군인들은 나라의 안보를 미군 등 연합군에게 맡긴 채 전선에서 싸우는 것보다 사이공에서 이루어지는 정권의 향방에만 관심을 갖게 됐다.

국가의 안보와 경제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는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정권유지에 혈안(血眼)이 되어 있는 집권층, 무사안일과 부패만을 일삼는

27) 전략촌(Strategic Hamlet) : 규모가 작은 마을들은 베트남의 근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마을을 만들어 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군대를 배치해 방위하는 촌락이다. 지엠 정부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얻어 전략촌 건설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략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반대했다. 그 과정에서 민심이반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공무원, 전선에서 싸우는 것보다 정권의 항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군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 이렇게 완벽하게 4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sup>28)</sup>

## (2) 국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감상적인 민족주의 의식

남베트남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혼란을 거듭하게 되자 국민들 사이에 잠재되어 있던 민족주의 의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남베트남 정부는 자신들의 정부가 아닌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이며 집권자들은 ‘미국의 주구(走狗)’다.”라는 발상이었다. 그 결과 정부를 상대로 무장투쟁에 나선 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의 활동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베트콩에 가담하는 주민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체제에 안주하고 있던 대부분의 주민들도 혼란을 이용해 자신들의 기득권 챙기기에 나섰다. 학생은 학생대로,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노동자와 농부 등 누구 할 것 없이 각각 집단적인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다. 이와 같이 각계각층의 욕구가 충돌하면서 집단간, 계층간, 지역간에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결과적으로 공화주의적 민주주의(republican democracy)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다원주의적 민주주의(plural democracy) 현상의 만연으로 공론(public judgment)과 여론(public opinion)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sup>29)</sup> 그 과정에서 정국은 더욱 혼미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정권과 체제에 대해 관심조차 없던 일반 국민들까지 북베트남과 호찌민을 감상적으로 선망하게 되면서 점차 베트콩을 지원하는 NLF의 배후세력으로 변했다.

28) 최용호, 『한 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542~453.

29) 박세일, 『21세기 한반도 구상』, 창비, 2004, pp.334~335.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남베트남 사람들조차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호찌민이다.”라고 주저 없이 말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심지어 주월 한국군 사령부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남베트남 여성도 그녀의 부모가 사이공 정부의 고위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찌민은 베트남의 가장 훌륭한 민족지도자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였다. 호찌민이 1969년 9월 2일, 79세를 일기로 사망했을 때는 많은 남베트남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검은 리본을 달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sup>30)</sup>

그 같은 민심은 군사작전으로 누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남베트남 주민들의 감상적인 민족주의와 호찌민에 대한 흠모는 그들이 지향하는 체제가 공산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민족주의와 호찌민은 이상(理想)이었으며 이념(ideology)이나 체제(體制)보다 상위 개념이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남베트남 사람들은 남베트남 정부에 대한 실망의 대안으로 북베트남과 NLF를 지지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민족주의는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정부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남베트남 사람들에게 북베트남과 NLF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공산주의 세력이 아니라 민족의 통일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세력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도 없었으며 또한 나라를 지킬 필요조차도 없었다.

### (3) 군대의 무사안일과 부패

1973년,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미군을 비롯한 연합국 군대가 철수하자, 남베트남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했다. 당시 남베트남은 미군이 철수하면서 넘겨준 최신 장비와 함께 100만 명이 넘는 지상군, 세계 4위를 자랑하는 공군력 등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30) 채명신, “베트남전쟁의 특성과 연합작전”, 최용호 편, 『베트남전쟁 연구총서』 제1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94~102.

넓은 재래식 장비와 빈약한 보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북베트남과 NLF의 군사력은 남베트남과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975년 1월, 북베트남군의 공세가 시작되자 이에 맞선 남베트남군은 전투다운 전투도 해보지 못한 채 불과 4개월 만에 최후를 맞이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요인은 내 나라를 내가 스스로 지킨다는 국민 안보의식의 부재와 무사안일에 빠진 군대를 들 수 있다. 당시 남부지역에서 활동했던 베트콩들은 강제로 동원된 경우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 그중에는 여성도 20만여 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북베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00만여 명 이상의 여성이 참전했으며 그 중 6만여 명은 호찌민 통로의 험준한 전장에서 남성들과 동일하게 전투를 수행했다.

반면 남부의 젊은이들은 풍족한 물질문화에 익숙해져 있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어려운 일에 종사하지 않으려 했다. 따라서 많은 고위층 자녀들은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병역을 연기 또는 면제받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면 전투지역에 가지 않는 방법은 많았다. 일정액의 뇌물로 장기휴가를 얻어 사이공에서 빈둥거리는 군인이 부지기수였다. 이들을 '유령군인'이라고 불렀다. 또한, 장군 등 고위층의 사병(私兵)으로 그의 기업체에서 직원 또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일명 '꽃군인'도 있었다. 이들 유령군인과 꽃군인을 모두 합할 경우 10만여 명으로 추산되었다. 58만여 명이었던 정규군의 20%에 육박하는 숫자인 것이다.<sup>31)</sup>

정상적으로 군에 근무하고 있던 군인들의 대적관도 엉망이었다. 당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은 산악과 늪지대에 은거하면서, 외부의 보급이 없더라도 생존은 물론 장기간에 걸친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반면 남베트남 군대는 미군이 철수한 후에도 자신들의 여건에 부합된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미군의 전투방식에 져어 있었다.

그들은 1개 분대의 베트콩을 상대하는데도 일단 전투기와 포병을 이용해

31) 이대용, "공산화 전 월남과 그 후의 실상", 『자유공론』 178~179호, 한국반공연맹, 1982, pp.154~163, pp.166~175.

폭격 및 포격을 가한 후 헬기로 기동해 전과를 확인하는 방식의 작전을 수행했다. 그들에게 헬기가 없다면 산악지역 기동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가난한 나라가 부자(富者) 나라의 전쟁방식을 그대로 답습했던 것이다. 고도의 정밀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함께 운영유지를 위한 기술과 보급 등 정밀한 지원체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한 남베트남은 그럴만한 능력이 없었다. 이로 인해 미군이 넘겨준 정밀무기들은 얼마 되지 않아 고철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실이 그랬음에도 남베트남 군대는 자신들에게 부합된 전략과 전술 개발은 도외시한 채 미군이 넘겨준 장비에만 의존했다.

그 결과 수준 높은 무기체계와 상대방을 능가하는 대규모 군대를 보유한 남베트남 군대였지만 빈약한 재래식 무기 및 보급체계를 가진 북베트남군과 NLF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과 같이 군대의 전략전술 역시 지형과 환경에 부합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남에게 유용한 전략전술이 나에게도 똑같이 유리한 것이 될 수 없다.

#### (4) 미군의 베트남전략 및 전술적 오류

남베트남이 출범하고, 패망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빼어 놓을 수 없다. 물론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남베트남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자국(自國)의 여론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강대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그 결과 남베트남은 미국의 정책에 따라 전략적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으며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과 유사한 현대사를 겪었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미군의 과도한 개입과 미군 스스로 채운 제한전쟁의 족쇄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입장에서 본다면,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철수를 결심했던 1954년은 공산주의 팽창의 도미노 현상이 극에 달한 시기였다. 이미 동유럽과 중국이 공산화되었으며, 한반도에서 발생한 6·25전쟁은 겨우 봉

합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반도 적화에 실패한 공산주의 팽창의 기세가 동남아시아로 방향을 돌려 베트남 사태가 유발된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베트남 사태를 방치한다면, 그 기세가 동남아 전체로 파급될 것이 뻔했다. 또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남베트남에 강력한 반공정부를 수립하도록 지원해 중국과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적극 봉쇄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베트남전쟁은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입장에서 본 베트남전쟁은 '냉전(冷戰)체제에 의한 동서(東西) 대립의 일환'이었다.

그 같은 배경에 따라 미국은 남베트남의 젊은 지도자 응오딘지엠(Ngo Dinh Diem)을 적극 지원하면서 베트남 사태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전쟁 시 38선을 돌파해 북진작전을 감행한 결과, 중국의 개입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베트남에서 또 다시 중국이나 소련을 끌어들이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지상작전을 엄격하게 17도선 남쪽지역으로 한정하고, 공중폭격의 경우에도 폭격 제한선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스스로 만든 제한전쟁의 족쇄였다. 그 결과 미군은 주적인 북베트남군보다는 그들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베트콩과의 전투에서 지치고 말았으며, 그들의 저항의지에 내성(耐性)을 키워준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자국(自國)으로부터는 전쟁 반대론에 휘말려 국력을 결집시키지 못했다.

둘째, 베트남의 여건을 무시한 군사력 위주 작전이다. 미군은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수색 및 격멸(Search & Destroy)작전을 통해 많은 베트콩을 격파하면서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의 끈질긴 외세 저항정신과 외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자연조건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친 저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 등 베트남의 문화와 풍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남베트남 정부의 역할이었다. 미군의 작

전이 계속되는 동안 남베트남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면, 미군의 전술적 승리가 빛을 발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남베트남의 정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새로운 베트콩이 계속 만들어졌다. 따라서 미군의 작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sup>32)</sup>

결과적으로 미군은 남베트남의 정치문제에 부딪혀 주민들의 민심을 얻지 못했다. 나아가 베트콩의 저항의지를 극복하지도 못했다. 또한, 군사작전을 거듭할수록,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할수록 적대적인 남베트남 주민을 더욱 많이 만들어 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셋째,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가치의 변화다. 베트남 사태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정책도 한계를 보이게 됐다. 그러자 미국은 아예 중국과 화해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1972년 2월, 닉슨의 베이징 방문으로 중국과 수교의 길이 열렸다.

그 결과 미국은 베트남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을 의식했던 북쪽의 제한사항도 대부분 해소됐다. 그때부터 하노이(Ha Noi)에 대규모 폭격을 가할 수도 있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변화됨에 따라 미국이 평가하는 남베트남의 전략적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명분으로 철수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베트남 정책은 미국 및 중국의 상호관계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남베트남의 생존보다는 자신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했다. 결국, 남베트남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남베트남은 그 같은 국제적 안보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으며,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까지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의 철수는 남베트남 패망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sup>33)</sup>

32) Westmoreland, William C., *A Soldier Report*, New York : Doubleday & Company, Inc., 1976, pp.310~362.

33) McNamara, Robert S., *In Retrospect: The Tragedy and Lessons of Vietnam* (New

## 4. 한반도에 시사하는 교훈

### 1) 베트남의 무력통일 이후

베트남공화국이 사라지자 이제까지 남부지역에서 반정부 투쟁을 주도했던 NLF와 베트콩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 내부에서도 NLF가 남베트남을 대표하며 남베트남의 여건에 부합되는 새로운 국가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세력도 있었다. 그러나 허수아비와 같았던 NLF 임시정부는 1976년 7월 2일, 북베트남이 주도하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Vietnam)'에 흡수되고 말았다.

베트남공화국이 사라지면서 남베트남의 주민들은 폭풍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새로운 사회주의공화국의 등장을 '민족주의의 승리'라며 반겼던 주민들은 급속히 바뀌는 공산주의체제에 적응할 수가 없었다. 남베트남을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NLF와 베트콩들도 같은 처지였다. 대부분의 요직을 북에서 내려온 세력들이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남베트남을 강타한 폭풍은 현실이 되었다.

현 정부가 무너지고 나면 뭔가 좀 더 좋은 제도와 체제가 만들어질 것만 같았던 남베트남 주민들의 기대는 참담하게 무너졌다. 그 폭풍의 첫 번째 표적은 150만여 명에 이르는 남베트남 정부의 공무원들과 군인 그리고 동조자들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지방으로 강제 이주되었으며 20만여 명에 이르는 고위직 인사와 군 간부들은 재교육장에 수용되었다.<sup>34)</sup>

일반 주민들의 처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본주의체제에 익숙해 있던 주민들은 모든 사유재산을 내어 놓아야 했다. 전쟁 중에도 풍요를 구가(謳歌)했던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참담한 가난이었다. 쌀 수출국이었던 베트남이 세계의 10대 빈국(貧國) 중 하나로 추락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발생했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살길을 찾아 국경을

York: Tines Books, 1995), pp.321~323.

34) 최용호, 『물어보세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36~40.

넘었다. 그 숫자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975년 한 해만 해도 소형선박에 목숨을 걸고 '보트피플(Boat People)'이 되어 조국을 탈출한 주민이 23만여 명에 달했다.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진 보트피플 중에는 '해방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NLF 및 베트남 간부들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었다.<sup>35)</sup>

## 2) 공산체제로 통일된 베트남의 변화

요즘 호찌민(Ho Chi Minh)시(市) 변화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모습은 우리나라 이태원 거리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달러를 든 미국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가게에서는 그들을 붙잡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 전형적인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들이다.

역사를 되돌려 볼 때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여 년 동안 존속했던 자본주의 체제 남베트남의 모습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오늘날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그들에 의해 패망한 남베트남 체제로 되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의 남베트남을 점령했던 호찌민의 후계자들은 "베트남 민족이 세계 최강의 미군을 물리치고, 통일국가를 수립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같은 민족의 자부심과 국가적 자존심이 국민들의 생활고(生活苦)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그들의 주장과 같이 "끈질긴 항미(抗美) 전쟁으로 미군을 축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파리평화협정'이라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베트남은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을 무력으로 점령함으로써 평화협정의 약속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

35) 남베트남 패망 후 보트피플이 되어 탈출한 민족해방전선(NLF) 간부의 대표적 인물이 쩌응뉴땅(Truong Nhu Tang)이다. NLF 임시정부의 사법상(법무장관)으로 남베트남 정부에 항거했던 쩌응뉴땅은 1978년 보트피플로 베트남을 탈출해 프랑스로 망명했다. 남베트남 패망 이후 남쪽에서 전개된 하노이의 정책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베트남의 반정부 세력으로 활동했다.

라 미국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아 버렸다.

이어 베트남에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를 구축한 집권세력들은 남베트남 점령 시 노획했던 미군 장비로 무장됨으로써, 필요 이상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결과 베트남은 무력에 의한 팽창정책을 계속 추구하게 되었다. 1978년 10월, 캄보디아를 침공해 점령하고, 1979년 2월에는 중국과도 전쟁을 치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베트남은 그 같은 군사적 승리로 자신들의 자존심을 다시 한 번 과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베트남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다. 베트남의 무력행사는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 우방국이었던 중국과의 교류마저 단절하게 했다. 따라서 통일된 베트남은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베트남은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물론 세계의 최빈국(最貧國) 중 하나로 전락했다. 따라서 그들은 국민들의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는데 급급하게 되었으며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 기간산업(基幹産業)의 재건과 발전은 꿈도 꾸지 못했다.

결국 가난에 지친 베트남은 전쟁 주도세력이 퇴장한 후 제2세대가 등장하면서부터 세계적으로 밀어닥치고 있던 변화의 물결을 거부할 수 없었다. 1986년 12월, 제6차 전당대회를 통해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도이머이(Doi Moi : 刷新)정책을 채택하고 과감한 개방화 조치를 취했다. 그때부터 베트남은 오히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한발 앞서서 개방적 사고를 갖게 되었다.

이에 베트남은 1989년,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던 캄보디아에서 철군하고, 1991년에는 전쟁을 치렀던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리고 1992년 12월 22일, 한국과 수교에 이어 1995년에는 미국과도 수교했다. 그때부터 베트남의 정치경제는 사회주의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국제화(國際化)와 함께 자본주의(資本主義) 방식을 도입하는 변화의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Ha Noi)와 제1의 도시인 호찌민에서도 외견상 사회주의적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sup>36)</sup>

오늘날에는 베트남의 어느 거리에서도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달러를 가진 미국인들의 인기가 높다. 따라서 현재도 그렇지만, 머지않아 무기대신 달러를 가진 미국인들이 베트남을 향해 대거 몰려갈 기세로 있다. 또한, 베트남 사람들도 미국의 투자규모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무엇 때문에 무수한 인명과 헤아릴 수조차도 없는 피해를 감수하면서 그토록 기나긴 항쟁을 해야 했던가. 만약 호찌민이 살아 있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몰아낸 미국 사람들을 향해 연일 추파를 보내고 있는 후계자들을 보게 된다면 무어라 이야기할까?

호찌민은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민족의 독립과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랬다. ‘민족의 독립과 자유’, 그것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최고의 이상(理想)이었다.

그렇다면, “통일을 이룩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얼마 전까지도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던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아가 “전쟁을 통해 몰아낸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을 다시 불러들이면서 그들의 도움을 얻어 국민의 굶주림을 해소하고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들은 모든 것이 오로지 전쟁 때문이었다고 답변한다. 독자여러분이 생각하는 답변도 있을 것으로 믿는다.<sup>37)</sup>

## 5. 결 론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어 지금까지도 참여한 군사적 대립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무력에 의해 점령된 남베트남의 사례는 그 자체가 귀중한 교훈이다. 인터넷이

36) Duiker, William J., *Ho Chi Minh*, New York : Hyperion, 2000, pp.562~578.

37) 최용호, 『물어보세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126~130.

나 기타 매체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넘쳐나지만, 그 교훈을 적용하는 데는 문제도 많다. 많은 자료들이 극히 미세한 부분으로 전체를 해석하거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베트남의 역사와 전쟁, 남베트남 패망의 원인과 무력으로 통일된 베트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등을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연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중국의 동남쪽에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베트남의 역사는 동북쪽에서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한반도에 많은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 교훈은 변천해온 베트남의 국가명칭을 고찰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베트남의 국가 및 전쟁의 명칭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Vietnam)과 월남(越南), 월맹(越盟) 등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베트남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점령된 이유는 남베트남 정부와 지도층의 부패, 국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국론분열, 군대의 무사안일 및 부패, 미국의 잘못된 전략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4가지 요소는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가 상호작용 및 서로가 상승작용 하는 촉매가 되어 미국 등 자유진영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베트남은 패망하고 말았다. 다시 말해 어느 한 가지 요소가 국가를 패망하게 하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상승·복합작용을 일으키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요소만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그것이 국가를 망하게 했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베트남은 미국과 체결한 평화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남베트남을 점령했다. 이어 캄보디아 점령과 중국의 공격까지 물리치면서 그들의 군사적 위상을 세계에 과시하는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군사적 승리가 오히려 국가발전을 가로막아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하게 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군사력 위주의 현실주의(realism) 이론이 유리하게 작동하지 못

했던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베트남의 지도자들이 비교적 조기에 도이머이(Doi Moi) 개혁, 즉 자본주의체제로 대변혁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의 대결에 의한 냉전체제와 베트남전쟁 및 6·25전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당시의 냉전구도는 베트남전쟁 및 6·25전쟁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타이완 점령까지도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미래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민족 내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에도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반도의 주변에서는 남·북한의 대립뿐만 아니라 세계 4대 강국의 세력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지도층과 국민들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와 변화의 추이를 살피고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베트남전쟁과 남베트남 패망의 교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부분으로 전체를 평가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줄이는데 본 연구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상과 같은 동아시아 전쟁의 역사를 고려할 때 주변 강대국과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전쟁은 어느 특정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과 주변4강국의 정세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공동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남·북한은 자체의 분단 문제와 대립에 함몰되어 세계사의 큰 흐름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지도자들은 베트남의 군사력 우선·과시 위주의 국가전략이 오히려 고립주의를 자초하게 되면서 국가발전의 압적 요소가 되었던 교훈을 숙고해야한다.

(원고투고일 : 2011. 12. 1, 심사수정일 : 2012. 2. 10, 게재확정일 : 2012. 2. 21)

주제어 : 베트남전쟁, 베트남공화국, 남베트남, 월남(越南), 월맹(越盟), 사회주의베트남공화국, 민족해방전선, 베트남, 도이머이, 패망의 교훈

<ABSTRACT>

## A Study on the Military History about the Republic of Vietnam(South Vietnam) Collapse

Choi, Yong-ho

This study is to analyze about lessons learned from Vietnam's History and collapse of the Republic of Vietnam (South Vietnam). This paper consisted of three parts such as the history and war of the Vietnam, the reasons about collapse of the South Vietnam, and issues rising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Especially, analysis of the data was tried to objective analysis based on historical facts of the Vietn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the followings.

First, history about Vietnam is giving many lessons to the Korean Peninsula. Korea and Vietnam are positioned in the similar geo-politic location. Historical lessons about Vietnam could be understood through the study on national titles of Vietnam. Accordingly, it is needed to study more deeply on the classification of differences about the South Vietnam, the Republic of Vietna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Vietminh, and so on, and contents related names of the nation and wars.

Second, the reasons of occupying the South Vietnam by the communists could be summarized as the four elements which are the corruption of her government and leaders, the egoism of her peoples, the idle and decay of her military forces, and the wrong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US). Those four elements of reasons mentioned above sentence were interacted and escalated among others. Consequently, the South Vietnam fell down finally even though positive supports from democratic freedom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so on.

Third,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disregard the Peace Treaty as the waste paper, occupied South Vietnam, and won in the wars against Cambodia and China. Nevertheless, military victor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hindered her national development, and gave causes that the country fell down as the one of poorest country in the world. And so, the Vietnam should have tried change of her economic system called *Doi Moi* policy which means the capital system.

The Cold War System built after the Second World War, is closely related with the Vietnam War (1955~1975) and the Korean War (1950~1953). In the future, the wars in the East Asia will be affected more by the dynamic international relationship than internal problems of other tribes.

Recently, four superpower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re competing among others as well as opposing the Republic of Korea (ROK) with North Korea each other. If the ROK leaders and Korean peoples will be go forward smoothly on the surging tides of geo-politics, they need to accept precisely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Vietnam.

Especially North Korean leaders were urged to accept the model of the Vietnam's reform and opening as soon as possible after deep considerations about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Vietnam which was blocked the national development.

Key Words : The Vietnam War, the Republic of Vietnam, South Vietnam, Vietnam, Vietmin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National Liberation Front, Vietcong, *Doi Moi* Policy, Lessons of Collapse